

제966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9월 8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2013 온누리 회복축제 '왕의 임재'

'근심' 으로부터 '자유' 를 '상처' 로부터 '치유' 를 '뉘임' 으로부터 '놓임' 을

9월 11~13일 서빙고 분당

온누리 회복축제 '왕의 임재' 가 오는 9월 11~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분당에서 막 오른다.

이번 회복축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참 나를 발견하고,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상처와 아픔이 치유를, 뉘임과 놀림에서 놓임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 회복축제는 열린 강의, 선택식 특강, 주제 강의, 저녁집회 등으로 꾸며진다.

주강사 이재훈 목사, 사라 그론-콜린, 도날드 트레드웨이는 왕의 임재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강사로 초청된 이관직 목사(사역자의 인격장애), 김주환 교수(회복탄력성), 남윤영 박사(우울로부터의 회복), 천정우 전도사(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등도 축제의 은혜를 배가 시킬 준비를 모두 마쳤다.

특별게스트도 풍성하다. 성악가 김영미, 탤런트 이석준, 이지형, 찬양사역자 나무엔, 위스덴스팀 FL Ministry,

사랑캠퍼, 로봇다리 수영선수 세준이가 출연한다.

집회기간동안 서빙고 이전만 광장에는 기도부스가, 서빙고 선교관 지하1층 상담실에는 상담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집회 둘째 날(12일) 선택식 강의를 마친 후에는 선교다큐멘터리 '뷰티풀 차일드' 를 상영한다.

다큐 뷰티풀 차일드는 백인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상처를 한국인 선교사들이 치유하고, 화해를 주선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문의: 3215-3355, 3532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3'

9월 18~20일, 예배 섬김, 간식 등 봉사자 모집

고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외로운 이주민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온누리 M미션 이주민 추석연합집회가 오는 9월 18~20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Hunger for God(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을 주제로 열리는 집회는 >예배 >나라별 모임 >연합세례식 >Adventure >예배개척 축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등 600여 명의 이주민과 함께 예배 섬김, 식사/간식 준비, 안내/청소, 어린이사역, 접수, 의료, 버스, 어드벤처 등을 섬길 봉사자를 찾고 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세례식, 태국어예배, 미얀마어예배 개척을 위한 특별순서도 마련되었다.

한편 온누리M미션은 매년 열리는 추석연합집회를 통해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영적추수를 거둬왔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문의:

양옥진 사역자(010-3337-3327)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지구촌 이웃을 도읍시다!"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오는 9월 15일 실시된다.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NGO '더 멋진 세상' 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다음 주일(15일) 예배에서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관련기사9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3 6차 선교사 파송식

오늘(9월 8일) 서빙고1부, 양재3부예배에서 각각 6차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된다. 6차 선교사 파송식에서는 3명의 단기선교사와 대청 FA 단기 선교사가 파송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9월 22일, 서빙고 양재

19번째 러브소나타가 오는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군마 현민회관)에서 올려 퍼진다. 론칭은 9월 22일에 서빙고와 양재에서 한다.

군마는 도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면적의 3분의 1이 산지다. 인구 200만 명, 124개 교회가 있다. 바다에 면해있지 않은 내륙지(본지)로 기온이 높고 습하다. 온천과 레저 스포

츠시설(스키장, 골프장), 곤약(일본곤약의 90% 생산), 양배추가 유명하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의 고향이기도 하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실행위원장 아리카와 마사오 목사(미에비시 그리스도교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11차 실행위원회를 마쳤다고 한다. 오는 9월 23일에는 장재운 목사(동경 온누리교회)가 QT세미나를 인도하고, 10월 14일에는 끝가대회가 열린다.

오늘 오후 5시, Acts29 비전빌리지 다목적홀 준공예배

오늘(9월 8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다목적홀 준공예배를 드린다. 준공예배에서는 >찬양 >기도 >준공식 경과보고(재단사무국) >말씀 >공로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축도 >식사 및 다과 등을 하며, 교제를 나눌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밀알(단기) - 중동 E국: 예배가 없는 땅의 예배자가 되도록
- 김루디아(단기) - 중동 A국: 언어의 기름부으심과 지혜가 있도록
- 김안나(단기) - 남아시아 H국: 차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 FA(중동 A국) - 김소망, Jedidiah, 샘물, 이레, 열매, 이사람, 주보배, 이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 FA(프랑스) - 황샘, 안나, 배카라미, 김시온, 바나바진, 백복자: 하나님 마음 품고 사역하도록
- FA(남아시아 M국) - Joy, 이루라, 김시안, 레이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늘 깨어있도록
- FA(남아시아 A국) - 오정모, 최라엘, 윤이나, 김빛나, 백루야: 이 땅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삼상 18:5~16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축복받은 환경에서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반면 사울은 축복받은 환경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나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축복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타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적인 중립상태는 없다

사무엘서는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왜 추락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셨을 때 인간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영적인 중립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든지, 세상의 인도함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교양과 문화로 잘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은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난 사람들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왕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불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광기 어린 모습이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고대의 이야기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사울들이 존재합니다. 국가 지도자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국가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어린이들만 해도 4-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는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질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왜 그렇게 추하고 더럽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그의 왜곡된 마음상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흥분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사울을 조롱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당시 쓰인 시를 보면 천과 만이라는 표현은 대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표현을 대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노래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표현했다면 사울은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합니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

다윗과 사울

하나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 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89절).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수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 다. 사울도 수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 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하나의 비유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 곳곳에 그 예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물을 받은 것에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질투는 형제를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기 어려운 시대였기에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제안에 악한 여인이 찬성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할망정 아이를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심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질투심을 이용해서 친모를 분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헤롯이 질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두 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말살시키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헤롯왕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만행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지도자의 질투입니다.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도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도자의 마음에 질투심이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지키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질투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곡된 평등의식 불러온 질투심

여러분 질투가 무엇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 <질투의 정의>에서 말하는 정의가 가

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는 질투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기뻐하면 그만큼 슬픔이 밀려오고 다른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은근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질투심의 표현입니다.

질투가 끔찍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죄에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질투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곡된 평등사상 때문입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등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도 똑같이 겪어야 평등하니까. 아닙니다. 왜곡된 평등사상은 언제나 좋은 것에만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똑같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평등의식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

둘째, 콤플렉스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무가치함을 증명해주는 일들만 기억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특히 열등 콤플렉스가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을 때 자신의 인생과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콤플렉스가 그를 질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반항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사무엘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겉으로 보면 질투심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열등감과 질투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한 사울

사울의 내면에 잘못된 평등의식, 콤플렉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들이 그를 파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질투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악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환경에서 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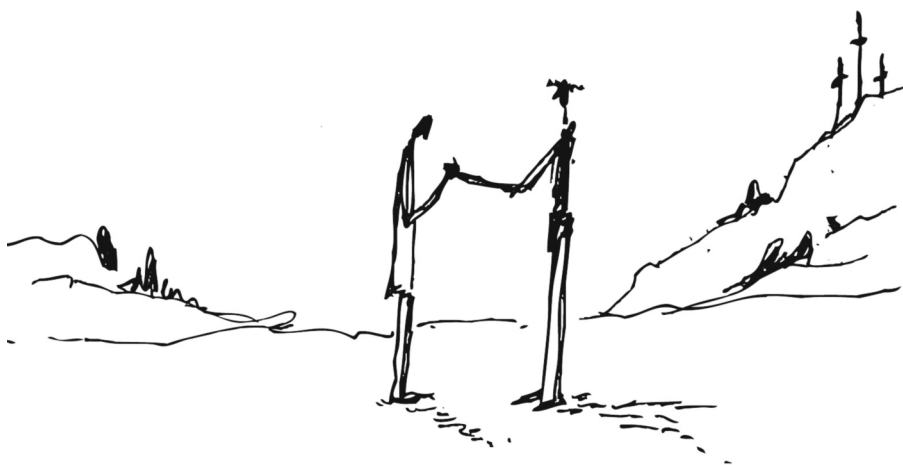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

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삼상 15:23-24).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진 양과 염소를 남겨둔 이유도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다윗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12~15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울이

거짓약속으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할 때도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 거짓된 음모에 빠져 들지 않습니다. 거짓된 약속, 음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거짓 음모와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두려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만약 그것을 회개하고 끌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품은 질투와 두려움을 털어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토해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와 불순물이 들어오면 토해냅니다. 회개하십시오.

둘째,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를 가져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식은 우리의 비교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교거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수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모세가 그를 야단 쳤습니다.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와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민 11:29).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인생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자신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추락시키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회개하고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삼상 15:30).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질투와 두려움을 넘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이스라엘 절기는 여호와와 절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으로 불리는데 유월절, 초상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7개 절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여호와와 절기’라고 칭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절기와 다른 이스라엘 절기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절기가 제정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절기들이 있다. 그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날이 특별한 ‘절기’로 제정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해방된 날이 8월15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광복절이 된 것이다. 즉 사건이 먼저고 절기 제정은 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순서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유월절을 예로 들어보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미리 정하셨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제정자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특별한 상징이 있기 때문이다. 절기와 관련된 상징은 각각 다르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초상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칠칠절(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교대를,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흔히 ‘절기’라고 하면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서나 다루는 딱딱한 주제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신약성경의 복음서도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어렵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러하다.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기사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시간적,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중보기도, 하반기 모임 시작

60여 명의 장로들이 지난 6일(금) 서빙고 순형홀에 모였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로 부르짖는 장로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하반기 시작을 알린 장로중보기도 모임의 개강예배는 조항진 장로의 사회로 기도와 찬양, 대표기도(양유

식 장로) > 환영 및 인사 > 말씀 > 중보기도 > 교제 및 마무리 기도(윤여진, 장양희 장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로들은 동글게 손을 잡고 서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누리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요한복음 17장 6~12절을 본문으로 하나 됨을 강조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심 분에게 집중할 때 하나가 된다. 말씀과 진리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 된 공동체, 중보기도모임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노년의 행복한 배움이 숨 쉬는 곳’

서빙고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지난 9월 4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는 시니어아카데미 개강예배가 열렸다. 온누리교회의 비전, 성령충만 그리고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뜨겁게 중보한 시니어아카데미 봉사자들의 기도회에 이어 진행된 개강예배는 장옥룡 장로 대표기도, 반태호 목사 설교, 순장들 특송, 정호욱 목사 오리엔테이션, 나눔, 저녁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반태호 목사는 ‘영생(요 3:16)’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그 진리만 붙들면 된

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자”고 당부했다.

1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서빙고 시니어아카데미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한편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9월 25일(수) 오전 11시 첫 번째 수업이 열릴 예정이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에스더 같은 믿음 주소서”

양재 권사회 가을학기가 시작했다. 지난 화요일(8일)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박희숙 권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양재 권사들로 구성된 권사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호영 목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에스더의 믿음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조 목사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도전하는 멘토와 같은 귀한 여성리더십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 조은실 기자

성찬 포도즙 함께 만들어요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에서 성찬 포도즙 제조에 들어간다.

서빙고 봉사자들은 오는 10일(화)

오후 2시 서빙고 본당에 모여 성찬 포도즙 담그기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헌신의 시간을 갖는다. 이 날 포도즙

담그기의 산 역사인 류석인 권사의 강의와 간증도 진행된다. 임직 권사 및 각 공동체에서 선정한 5명의 권사들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

/ 조유진 기자

서빙고 - 지하 1층 식당

	오전반 09:00~12:30	오후반 13:30~17:30	저녁반 18:30~21:30	문의
9/23(월)	성동 광진, 관악 금천, 양천, 마포	성북, 이수, 서대문, 강서	서빙고, 한강, 이촌, 강촌	임재성 간사 3215-3533 민승기 팀장 010-8852-8949
9/24(화)	여의도, 노원, 중종로, 동대문 중랑	영등포 구로, 동작, 용산, 고양 은평		
9/25(수)	북부리, 김포, 광명, 일산, 가정지역			

양재 - 지하 1층 식당

	오전반 10:00~14:00	오후반 14:00~18:00	저녁반 18:00~20:00	문의
9/24(화)	강남A, 강남C, 산본안산	서초A, 서초B	강남B	안지숙 간사 570-7469
9/25(수)	안양평촌, 분당A, 분당B	서초C, 과천의왕, 송파	양재	

온누리 예배학교 열린다!

온누리 예배학교 서빙고 1기가 오는 15일(주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배학교는 5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4~6시에 열리며 김영진, 정장철 목사의 강의와 나

눔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2만원이며 접수는 아이스쿨과 데스크에서 받는다.

문의: 김항준 팀장 010-3735-8824

서빙고, 양재 OBC 과정 개강

온누리교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OBC(Onnuri Bible Club) 서빙고, 양재 과정이 오는 24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된다. 등록은 아이스쿨에서, 정원은 반마다 70명(공동체 30명)이다. 등록비 2만 원.

한편 OBC 그룹리더, 공동체 OBC 사역자, 캠퍼스 OBC 사역자 110여 명이 지난달 24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는 이재훈 목사의 격려사, 서경남 목사의 말씀선포, 서재범 목사의 사례발표, 조별토론, 김현실 목사의 기도 인도, 간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서빙고-한숙영 집사(010-5315-8729)

양재-민문기 집사(010-4369-3317)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서빙고	화	목	토
오전 10시~12시30분	갈라디아서 유수열 목사	하나님의 성품 이한규 목사	갈라디아서 여성민 목사
저녁 7시30분~10시	로마서 안광국 목사	요한복음 이해영 목사	

양재	화	목
오전 10시~12시30분	요한복음 정재욱 목사	하나님의 성품 김상수 목사
저녁 7시30분~10시	갈라디아서 황재명 목사	로마서 박태영 목사

대 전 “무한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미자립교회와 지역교회 Touch집회, 카이스트·충남대 집회,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설교세미나, 의료 및 이미용사역, 중서, 유성, 동누리 3개 공동체, 16개 다락방, 72개 순. 지난 10년 동안 대전 온누리교회가 대전 땅에 그려온 믿음의 발자취다. 2003년 9월 7일, Acts29의 비전을 품고 충남대전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꽂은 대전 온누리교회.

지난 9월 1일(주일) 오전 11시30분 대전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윤길중 목사(대전 온누리교회)의 “지난 10년 동안 대전 온누리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과 함께 시작된 이날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는 ▷김승열 장로의 대표기도 ▷주영광 찬양사역팀의 특선 ‘영광’ ▷이재훈



이재훈 목사와 윤길중 목사, 대전 리더십(장로)들이 함께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설교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대전에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1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예배 후에는 점심식사와 함께 대전 리더십 및 순장들과 이재훈 담임목사의 만남이 이뤄졌다. 창립주일을 맞아 교회는 성도들에게 점심식사와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아름다운 고백 ■

“10년 전 처음 새벽예배에 참석했을 때, 가족점퍼를 입고 기타를 들고 예배를 준비하시던 목사님을 보고 기존 교회들이 갖고 있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전에 온누리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 서성현 장로(중서공동체)

“지난 10년을 돌아켜보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이미숙 집사(동누리공동체)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흥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석건 형제(일림대학부)

“지나온 10년과 동일하게 앞으로의 10년도 더욱더 기도와 사랑으로 가득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 주은혜 자매(일림대학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좋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손광희 성도(유성공동체)

“하나님 은혜로 1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도 올해 표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법중 박혜린 부부(영여예배)

좋은 성품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사역, 성품학교 세미나 시작



좋은나무성품학교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좋은 성품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며 기대감으로 강의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킵니다. 성품이 변화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 세미나가 지난 9월 4일(수) 개강했다. 강사로 나선 이

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는 단절된 대화, 무너지 관계를 회복하는 해결법으로 ‘좋은성품대화’를 제시했다. 그는 “60일을 반복해야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는 것처럼 성품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부모

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 강의에는 130여 성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배운 성품대화법을 옆 자리에 앉은 성도들과 함께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 후 김복형 집사(중서공동체)는 “평소에 아이들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인지 모르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던 것을 반성했다”며 “앞으로는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다”고 했다.

영어교사인 김남순 성도(유성공동체)는 “아이들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문제라고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첫 강의에서 내게 ‘이것만 고치면 된다’는 작은 방향전환을 주어 좋았다. 다음 강의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송정미 사모 찬양콘서트 ‘희망가’

창립 10주년과 함께 공동체 개강을 맞아 지난 주일(1일) 오후 7시에는 개강예배와 함께 CCM사역자 송정미 사모의 찬양콘서트 ‘희망가’가 열렸다.

송정미 사모는 1시간여에 걸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 정지은 기자

대전 알림

■ 새가족 환영식

일시 장소: 9월 8일 오전 11시30분 본당

■ 일대일 양육자반 개설

〈임용성 목사반〉-15주

일시 장소: 9월 14일 오후 2시 501호

대상: 대학청년부

문의: 최규중 전도사(010-5657-8176)

■ 일대일 수료예배

일시 장소: 9월 15일 오전 11시30분 본당

문의: 양현열 집사(010-5882-6073)

기도의 용사 다시 출격!

열방과 선교사 위한 기도의 자리

“많은 중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방의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고,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소서”

열방과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가 개강했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매주 목요일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오전 예배와 각 나라별로 나누어 기도하는 권역별 기도모임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강 첫날인 지난 5일(목)에는 10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찬양, 환영, 정마태 선교사의 말씀, 기도, 나라별 기도 등의 순으로 기도의 불을 지폈다.

/ 조은실 기자

묵상과 함께하는 성경일독

양재 온누리 여성사역에서 성경일독학교가 시작됐다.

올 하반기에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등 구약편으로 총 12주 동안 진행된다. 스콜 첫날인 지난 6일(금)에는 2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됐다.

/ 조은실 기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서빙고 일대일 사역팀과 광명, 양천, 영등포구로, 관악금천 등 4개 공동체가 연합하여 진행해온 서울반석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예배가 지난 9월 1일 광명시에 위치한 서울반석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서울반석교회 일대일 사역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총 29명의 동반자가 양육되는 결실을 맺었다. 일대일 과정에 참여한 김용석 목사와 성도들

은 더욱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실히 제자양육을 받으며 동반자반을 마쳤고, 앞으로 양육자반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수료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수 3:11-17)’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유수열 목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고 권면했다.

/ 조유진 기자

“스포츠 달란트, 복음을 위해 사용합시다!”

지난 8월 20일 양재 화평홀에서는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주관으로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1997년 몽골 선교사로 떠나 16년 동안 하나님을 전한 양영자 선교사. 선수생활시절 국제대회 기간 중에도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했을 정도로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던 그녀가 선교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간 증

내 삶의 소망,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양영자 선교사(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부부가 몽골에서 15년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

“저는 어려서 입은 팔목부상과 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선수권 대회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지금처럼 중국과 왕래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을 때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탁구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구’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997년, 저희 부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다른 언어, 문화를 익히며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나기도 하고, 한국 후원교회에서 택배를 보내

줬는데 우체국 직원들이 내용물을 모두 빼고 빈 박스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라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6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내몽고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몽골 사람들과 달리 고유 문화를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번역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구역과 신약이 완역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심으로 내몽고와 몽골에서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제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두 딸

사역 가운데 어느새, 딸이 초등학교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국제학교와 한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수학교사한 자매를 보내

주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이자매 덕분에 초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홈스쿨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WEC 선교단체에서 저희의 기도제목을 듣고, 영국인 현지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9년 동안 초등학교교사 생활을 한 자매였는데 저희를 위해 사직하고 큰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헌신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낼 시기가 다가오자, 적합한 학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국제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선교사 자녀는 가지고 있는 만큼만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학비만 내고 중1~고3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양영자 선교사

(88년서울올림픽금메달리스트)

J4U공동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채운 고창 아웃리치”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창 아웃리치.

지난 8월 7~10일까지 전라북도 고창으로 다녀왔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고창으로 향했다. 먼저 왕촌교회에 도착해 청소 사역으로 함께 섬기며 서로간의 어색함을 떨쳐버렸다. 짜증이 날만 한 고된 작업에도 모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힘들다고 생각한 것이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습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며 고

된 작업을 마무리했다. 맛있는 저녁식사 후, 서로가 하루 동안 느끼고 본 것을 나누며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둘째 날, 드디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문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을 통해 내가 왜 이곳에 왔으며, 주님께서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방문한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이며, 아픈 몸과 고된 마음,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곳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단순한 도움은 어느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외롭고 지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서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외로움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찰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렇게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방문 사역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 고민하고 있던 ‘내려놓음’의 의미가 결국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과 확신 속에서 주님 뜻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셋째 날에는 마을 잔치 ‘블레스 파티’를 열었다. 마을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박수치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어르신들과 헤어지기 전, 팀원들은 어르신들과 손을 잡으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고창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를 것을 결단했다.

/ 김정수 형제



대청 바이블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큐티 베이직, CRG 과정 등 신설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가 오는 9월 11일(수) 양재 기쁨홀에서 개강한다.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비전에 헌신하는 헌신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을 양육하고자 마련된 ‘바이블 아카데미’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기초과정(Basic Course) ▷크리스천 청년 리더십을 세우는 심화과정(CDC: 순장사관학교) ▷영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선택과정(큐티베이직, CRG, Why Missions?, 알데일 양육자반, 요한복음, 돈 섹스 권력, 로마서)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에는 큐티를 배우는 ‘큐티 베이직’,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CRG(Christian Relationship with God)’,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돈 섹스 권력’ 과정이 신설됐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온누리 대학청년들의 양육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3. 데이터로 보는 CGNTV
4.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전 세계 174개국에 365일 24시간 동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CGNTV.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주지사, 일본지사, 대만, 태국, 아랍 등지에 제작센터를 세워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4개의 위성과 5개의 위성빔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방송을 방영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CGNTV 직원들, 무엇보다 방송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는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목마른 선교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를 위해 열방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CGNTV의 하루를 들여다보았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대만 타이페이 제작센터_PM 12:00



저기 보이는 '타이페이 101 빌딩'

타이페이 거리 풍경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멀리 타이페이의 상징 '타이페이 101 빌딩'이 보인다. 타이페이 제작센터에서는 현지 모습과 소식을 담기 위해 날마다 구슬땀 흘리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제작센터_AM 8:00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어!

시청자들이 중동 지역을 마음에 품고 중보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촬영하고 있다. 현지PD가 은혜의 현장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CGNTV 본사_AM 00:00



CGNTV는 잠들지 않는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도 선교지에 원활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송출팀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방송상태를 점검한다.

미주지사_PM 15:00



미주 CGNTV! 지경을 넓혀라!

한인교회에서 대담 촬영 중. 미주 CGNTV는 한인 성도들이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도록 미주지역 한인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 지사_PM 19:00



아픔을 함께 나누는 CGNTV

일본CGNTV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대지진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봉사하고 있다.

태국 제작센터_PM 22:00



CGNTV 알리고, 교제도 나누고

캠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CGNTV를 알리는 시간. 캠프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SNS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일여성예배는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영적 재충전의 자리이다. 양재 온누리 수요일여성예배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 예배이다. 여성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밴드팀, 여성을 위한 말씀 주제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위한 새신자 반까지... 여성이 살아나고 여성이 회복되며, 여성이 행복해지는 양재 수요일여성예배의 자리로 안내한다.

14년 넘게 이어져온 중보기도모임

수요일여성예배에는 예배 한 시간 전부터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중보기도 팀원들은 수요일 오전 9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시온홀에 모여 큐티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와 성도와 강사를 위해 열정을 쏟아 기도한다. 기도모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큐티나눔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

누기 때문에 팀원들 사이에 끈끈한 동역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중보기도팀장인 김승희 집사는 기도모임을 인도하며 받은 은혜를 고백한다.

“중보기도는 능동적인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렸을 때 그냥 청중의 느낌으로 예배 참석했다면, 지금은 함께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모임 팀원 각자가 받는 은혜도 더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을 위한 맞춤예배

기도로 준비된 예배는 찬양의 열기가 뜨겁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그레이스(Grace) 콰이어팀의 찬양과 블러섬(Blossom) 밴드팀의 아름다운 연주로 20대에서 70대까지 여성 모두가 하나님 사랑에 푹 잠긴다.

수요일여성예배의 힘은 무엇보다 말씀에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묵상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깨어있으라’ 등 이는 올해 진행된 말씀의 주제들이다. 각 영역의 전문 강사와 선교사를 통해 회복과 치유, 묵상, 기도, 자녀, 선교 등 다양한 주제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중보팀장 김승희 집사

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했고, 찬양팀의 장영아 집사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설교 통해 듣게 하셔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배 후에는 수요일 새신자 과정이 진행된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힘든 여성들을 위한 주중새신자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회로 찾아온다.

교회 등록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신자 과정을 통해 신앙에 확신이 없는 많은 여성들이 믿는 엄마와 아내와 딸로 거듭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문명옥 권사는 수요일 새신자반 사역의 감동을 말한다.

“가족 중에 혼자 크리스천인 여성들이 수요일 예배에서 나와 은혜 받고, 새신자 반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 귀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중에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수요일여성예배를 안내팀장 김영숙 권사는 이렇게 간증한다.

“수요일여성예배는 여성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에너지를 얻어 회복되고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쿨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 있는 그리스

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움의 자리로 안내하는 통로입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진’으로 진행되고, 오는 겨울에는 ‘Christmas for you’라는 주제로 전도집회를 갖는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예배에 오는 성도를 안내팀이 환하게 맞이하고 있다.



그레이스 콰이어팀(정면)의 찬양과 블러섬 밴드팀(왼쪽)의 연주로 수요일여성예배가 시작된다.

인터뷰

“찬양으로 사랑고백해요”



저는 올해 초에 양재 여성사역에서 처음 열린 예배찬양학교 스쿨을 통해 수요일여성예배의 그레이스 찬양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쿨을 통해 찬양사역자의 역할과 마음자세, 태도를 배우고 있었고, 스쿨을 수료한 뒤 올해 5월부터 수요일여성예배 찬양팀을 섬기게 되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수요일여성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항상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저의 영혼이 소생됨을 깨닫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 장영아 집사(서초B공동체)



수요일여성예배를 통해 여성들은 기쁨으로 웃고,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며 회복되고 치유됨을 경험한다.



NGO '더 멋진 세상' 과 함께

‘더 깨끗한, 더 건강한, 더 풍요로운 세상’ 만들기

전 세계에 하루 125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층이 17억 명 존재한다(WHO 2007). 그 중 90% 이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인류의 6분의 1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NGO '더 멋진 세상' 은 인종, 종교, 지역, 이념을 초월해 지구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온누리교회

소속 NGO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남아시아 등 10여 개국에서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구호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더 멋진 세상' 이 전개하고 있는 사업은 일회성이나 단발성 구호활동이 아니다. 지역을 선정한

다음 중장기적 목표를 바탕으로 의료, 보건, 교육, 의식개혁운동, 적정기술 도입 등의 사업을 통해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더 멋진세상 사업

지역	사업	내용	연혁
세네갈 본나비마을 기니비사우 불룸마을 르완다 르와마가나마을 파키스탄 후쉬푸르마을 스리랑카 몰라티브마을 네팔	어린이생명살리기 어린이양육 차세대 지도자 양성 해외아동초청치료 식수환경개선 태양열 전기보급 학교환경 개선 태양열 전기보급 학교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의료환경 개선 자립기반 조성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전염성 질병(말라리아, 수인성질환, Dengue) 예방 모자보건사업 기초보건 시설 제공 교육용품(교재, 학용품 등) 제공 영양 개선 사업 청년 초청 교육기회 제공, 유학비 지원 환우초청 수술비 지원 우물, 정수기 등 식수시설 설치, 관리법 전수 태양열 전기, 가로등 설치 학교, 운동장, 도서관, 책상 등 낙후시설 개선 부엌, 화장실, 하수도, 지붕, 쓰레기 처리장 등 개선 진료소, 조산 설비 등 설치, 의약품 제공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예방접종, 지역보건센터운영, 건강검진 및 진료) 보건 교육 및 훈련 생산성 증대 및 주요 농작물 증산기술 연구 및 전수 농업생산성 향상 훈련 현지 사정에 적합한 기술 연구 및 양계, 양봉, 봉제 등 기술 전수 직원 및 지역 담당자의 능력 배양, 마을주민 역할 확대 마을주민 대표단 조직, 인식개선 교육	2010년 12월 22일: 창립총회 12월 29일: 법인허가 (외교통상부)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사업 6월: 파키스탄 홍수 피해 지역(후쉬푸르)지원 사업, 지역개발 12월: 터키 지진피해 지역(VAN) 긴급구호 사업 2012년 3월: 태국 홍수피해 구호사업 4월: 세네갈 본나비 지역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사업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2차 지원 사업 5월: 미얀마 난민 인도적 지원 사업 6월: 파키스탄 후쉬푸르 지역개발사업 (비전센터 완공식) 9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정경화 자선 콘서트 11월: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사업 2013년 1월: 르완다 르와마가나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사업 3월: 기니비사우 사업지 개척 5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정경화 자선 콘서트 스리랑카 몰라티브 지역 전후복구사업(몰라티브 어린이 교육센터 건립) 7월: Stop Malaria!! 모기장보내기(아프리카) 캠페인 8월: 해외장애우 초청수술 (캄보디아 소반나린)

더 멋진 세상이 찾아 준 행복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꿈이에요”

서대문 공동체가 이웃리치를 가서 만난 소반나린은 빠르게 이어로 부터 60Km 떨어진 농촌마을에서 아버지 르은(40세) 어머니 안신(38세)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발에 약간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2008년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떨어져 장애가 있는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한 소반나린의 다리는 더욱 불편해졌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소반나린이 NGO '더 멋진 세상' 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도착했다. 더 멋진 세상 스태프들이 소반나린을 데리고 김병순 장로가 운영하는 순병원으로 향했다. 몇 차례 진단과 검사를 마치고 8월5일 소반나린은 수술대위에 올랐다. 수술경과가 좋아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반나린은 고국에서 영어공부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회복사역 본부장 - 이기원 목사 인터뷰



'왕의 임재' 이렇게 진행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사61:1).”

2013 온누리 회복축제 ‘왕의 임재’의 주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왕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행사는 9월 11일(수)-13일(금) 3일 동안 주제강의, 선택식 특강, 저녁집회까지 세 차례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강의와 집회 사이에 다채로운 특순을 비롯해

스킷드라마, 워크샵, 패널토의, 간증, 영상 등 풍성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복미 원주민 선교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뷰티풀 차일드(감독:이성수)’가 둘째 날 오후 5-6시 상영된다.

주 강사들 소개

이번 온누리 회복축제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도날드 트레드웨이, 사라 그론-콜린(Sarah Groen-Colyn) 등이 주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특히 사라 그론-콜린 박사는 치유임재 사역을 이끄는 린 페인(Leanne Payne)이라는 분의 제자로, 현재 Ministries of Pastoral Care의 부회장으로 기도와 상담, 영성훈련 강사로 유명한 회복사역자입니다.

특히 이 Ministries of Pastoral Care(치유임재팀) 6명 모두가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회복축제와 그 후속프로그램인 ‘치유의 임재’ 세미나를 섬겨줍니다. 또한 의학박사로 기도와 치유사역에 힘쓰고 있는 도날드 트레드웨이(Donald

Tredway) 박사는 지난해 회복축제 ‘교통의 선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주강사로 모셨습니다.

온누리 지난 10년간의 회복사역을 한눈에

이번에 ‘왕의 임재’에서 준비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온누리교회의 회복사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해온 회복사역 내 7개의 사역이 각 룸에서 진행되어, 가장 관심있는 분야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또한 점심과 저녁시간에는 상담과 안수기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상담은 온누리교회 서빙고 양재 상담실의 전문 상담가들이 조를 이루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부스에서 온누리의 교역자들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대하는 점은 이것

한국교회에 회복사역을 알리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동안 해오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회복되는 원리만을 가르쳐주는 집회와는 다른 회복축제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왕의 임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직접 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 낫는 것인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될 수 있는 많은 자원들과 교회 안에 사역들, 말씀, 기도 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회복축제가 그런 영적 회복의 방법, 그 길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진행 조유진 기자 uj@onnuri.org

2013 온누리회복축제

왕의 임재

알려드립니다

- 행사장 내외부에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집회 장소는 서빙고성전 3층 본당입니다.
- 오전과 점심, 저녁시간에는 리허설 관계로 본당 출입이 통제됩니다. (집회 30분 전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시 개인물품을 휴대하셔서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등록시 받은 명찰을 항상 착용해주시고 미 착용시 출입이 통제됩니다.

등록

- 등록시 명찰과 교재를 드립니다.
- 당일등록 가능합니다.

식사

- 행사 중에는 점심만 제공됩니다. (저녁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등록시 받은 식권으로 3일 동안 점심식사(도시락)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고.

주차

- 행사 중에는 개인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 및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촌역<->교회 셔틀 운행(시간 내에 연속 운행)
장소: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탑승
시간: 오전 8:30-10:30 / 오후 18:30-20:00 / 저녁 21:30-22:00

탁아

- 운영시간은 오전 10:00-12:00 / 오후 13:40-16:30 / 저녁 19:30-21:30입니다.
- 점심 및 저녁시간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 탁아방은 영유아실(36개월~초등3학년), 자모실(36개월 미만, 부모 동반)입니다.
- 물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은 외부 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의무실

- 본관 1층 러빙핸드실에서 간단한 구급약을 지급합니다.
- 지병 및 치료 중에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약을 준비하십시오.

기도 및 상담부스

- 5분 기도부스와 10분 상담부스가 이천만 광장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 총 4회로 수요일 저녁 Break time, 목요일 점심식사/저녁 Break time, 금요일 점심식사 시간에 운영됩니다.

홍보부스

- 행사 기간 내에 로비, 카페숍 앞에 설치, 운영됩니다.
- 두란노에서 도서 및 영상/음반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문의: 02-3215-3355



제966호 | 2013년 9월 8일(주일)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김길선	국순임	■ 성복		박미선 김희수	조민제 장창근	● 양 재		김지영 김수경	서보경 김선순	박정남 유영이		정승원 황유선	김지혜 도옥지	오은주 이미선		■ 인천C		김 원 박용식			
■ 가정사역		한기원 김석영	박창우 김석영	■ 동작		홍순남 오명희	황학연 김중희	■ 갈렙		김경선 김학숙	김지현 이정례	민지혜 이정례		■ 특초		장서봉 이정민	김진교 김예선		■ 인천A		김정선 조인숙		
박혜실 박수현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김선국 홍진호		김태중 강현원	유송희 김동준	한나래 김현태		■ 하늘		김정경 김희숙	이남영 서경윤	■ Bridge33+		이상윤 김윤식	서주연 전애육		■ 기타		김정수 양기영		
이승희 배항미		최미혜 윤미자	오성숙 배상금	최지영 오세은		박옥인 박애복	최지니 최귀숙	이재은 이규성		■ 강남A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대완 이상복		김은희 조성미	최주희 이진숙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정 이명자	임영미 민경애	장희영 김미숙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김명희 정미라		김성환 박명준	이승희 배항미	김미숙 신혜영		조은미 이현숙	강현수 서선교	황선미 박명희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갈렙		이승현 광경현	■ 마포	김유진 우정현	김무환 이철희	성정민 장정심	김미숙 신혜영	이희준 김차욱		고희선 백지희		김광현 이승훈	서성호 현옥진	김현정 장미옥		김은희 조성미	홍성원 유승식		김영수 전혜경		김수진 김인애		
■ 강서		김혜																					

· 2013 · 온 누리 회 복 축 제 ·



왕의 임재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

2013. 9/11(WED)~9/13(FRI)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MAIN SPEAKERS

이 재 훈
온 누리 교 회사 라 그 론-콜 린
Sanctuary Psychological Service도날드 트레드웨이
Y W A M 강 사

| SPECIAL SPEAKERS | 이관직 목사, 김주환 교수, 남윤영 박사, 천정우 전도사

| SPECIAL GUESTS | 김영미 권사, 이석준, 이지형, 나무엔, 로봇다리 세진이, FL Ministry, 사랑챔버

· 회비: 5만원 / 사전등록 4만원 (9/5일 까지 등록완료) 하나은행 573-910004-30205 (예금주: 온누리교회 회복축제)
· 접수: 홈페이지 www.onnuri.org 에서 신청 (선착순 마감) · 문의: 02-3215-3355, 3532 / 02-570-7522

Onnuri
Community Church